

'코끼리똥 종이'로 자연과 상생 배워요

제로웨이스트 카페 '몽몽만남' 시민들과 달력 만들기 수업 판매금 일부 코끼리 보호소에 기부 "재활용+예술 다양한 기획할 것"

"스리랑카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코끼리를 살육했던 적이 있어요. 코끼리가 농작물을 먹고 아무 데서도 불일을 봤다는 이유에서죠. 이때 사회적 기업 '팍사무스'는 코끼리 똥에 섬유질이 많다는 데 착안해 '코끼리 똥 종이'를 제작했습니다. 판매금 일부는 주민과 코끼리 보호소에 기부돼 자연과의 상생에 도움이 되죠."

제로웨이스트 카페 몽몽만남(동구 경양로 374)에서 진행한 '코끼리 똥 종이로 연달력 만들기' 클래스 현장. 이 자리에는 몽몽만남 김민서(여·27) 대표와 서은지 강사(26·응디여리 대표)가 '코끼리 똥 종이'에 그림을 가미한 일 년 달력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시작해 3회차를 맞은 수업은 서 강사가 방문한 적이 있는 광주 지음화실의 연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오뎅토돌한 코끼리 똥 종이는 별다른 악취를 풍기지 않았다. 똥종이의 질감과 유사했는데 코끼리의 위장을 거쳐온 나무의 생애와 이력이 다 가능되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코끼리의 소화 상태에 따라 종이의 질감은 모두 달랐다. 투박한 종이인 반면 더 부드러운 것도 있었다.

이날 수업에 참가한 인원들은 대부분 그림 그리기에 입문한 초보들이었지만, 세상에 하나 뿐인 종이에 수놓는 나만의 오일 파스텔화를 그린다는



광주 제로웨이스트카페 몽몽만남에서 열린 '코끼리 똥 종이로 연달력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장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미리 준비해 온 도안에 맞춰 토이스토리,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 등을 그려 나갔다.

행사를 총괄하는 김 씨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들어진 코끼리 똥 종이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판매금의 일부는 코끼리 보호소에 기부해 코끼리가 살육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예방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카페 한편에는 제로웨이스트 센터도 마련돼 있어 이목을 끌었다. 개인이 분리배출하기 힘든 자원을 가져오면, 용도에 맞게 재활용·재사용이 가

능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가져온 새 신발끈이나 재사용 가능한 단추 등은 공방에 기증하고 있다.

이미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는 수거해 가위 손잡이를 만드는 공방에 기부도 한다. 이밖에도 폐이쑈폰, 폐전선 등은 서울재활용센터로 보내기도 한다.

서 강사는 "코끼리 똥 종이와 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계기로 다양한 기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의 선순환, 생명 보호 등에 도움이 되는 제로웨이스트 행사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천주교 박해 100년 질곡의 세월

조성두 작가, 장편소설 '산으로 간 고등어' 발간

소설가가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오랫동안 내면 깊숙이 묵혀두었던 소재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장작의 욕구로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서 부딪힌 어떤 부조리가 소설의 질료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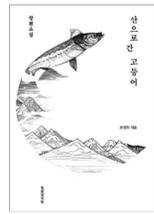
또 어느 때는 책을 읽다가 문장에 꽂히거나 미술 전시를 관람하다가 이색적인 그림을 보다가 상상의 자극을 받는다.

조성두 작가가 장편소설을 쓰게 된 것은 사뭇 이례적이다. 그는 "아는 지인의 식당에 갔는데 그곳의 이름이 '산으로 간 고등어'였다"며 "맛집으로도 유명한 데다 울퉁한 외식 철학을 갖춘 그 집 이름에 꽂혔다"고 한다.

조성두 작가가 최근 펴낸 장편 '산으로 간 고등어'(일곱날의 빛)는 이색적인 제목만큼이나 작품 또한 흥미롭다.

주요 서사는 1800년대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1801년 신유년을 비롯해 1903년 기해년, 1866년 병인년을 오가며 충북과 경북 일대에서 발생했던 순교의 현장을 담고 있다.

소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 산속에 숨어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화전과 용기를 굶고 살던



산골마을에 고등어를 든 소년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산골 소녀 초향, 붓집장수 아들이자 간첩이 소년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어떤 비극성을 내포한다.

김동희 도서관 사서는 "흡입력 있는 이야기가 영화처럼 장면이 그려지며 빠르게 펼쳐진다. 시적 감수성 넘치는 표현과 어머니와 딸이 대를 이어 연주하는 '고등어 변주곡'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고 평한다.

한편 조 작가는 "어머니의 고향을 소재로 잃어버린 우리 정신사의 한 편을 찾고 싶었다"며 "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역사, 특히 박해의 역사를 다뤘다"고 언급했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작가는 교육과 방송 미디어 쪽에서 일을 했으며 이후 사업을 했다. 향후 생명과 섭리, 소망, 소명에 대해 꾸준히 글을 쓰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예술의 전당' 홍보맨 찾습니다

14일까지 시민기자 모집...공연 정보·리뷰 등 글·영상물 게시



지난해 시민기자가 보도한 광주시립오페라단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전당)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4 광주예술의전당 시민기자단' 2기를 모집한다. 기자단은 전당 온라인 플랫폼 등에 시립예술단체, 전당 공연 정보나 리뷰 등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글·사진기자, 영상 제작 및 게재를 맡는 영상기자 총 15명 이내 선발할 예정이다. 글·사진부문 지원자는 전당 및 시립예술단체 관련 블로그 게시물 1건, 영상 부문은 직접 촬영, 편집한 영상물 2개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전당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를 다룬

발자 이메일 접수. (최종 합격자는 2월 21일 전당 누리집에 발표 및 개별통보 예정)

선발된 인원은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분야 및 게시 여부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기자에게는 특별 부상도 지급한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은 "평소 광주의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에 애정이 있거나, 사진과 영상 촬영 등을 즐기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조직 슬림화 추진

올해 경영비전 미션 발표...조직 재편·인원 7% 감원 의결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요성)이 조직 슬림화, 인력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66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직 슬림화를 비롯해 인력 7% 감원 등 경영혁신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현재의 1실, 3본부, 1센터 11개 팀 조직을 3실, 1단, 9개 팀으로 재편한다. 3실은 기획경영실, 예술지원실, 시민문화실로 재편되며 1단은 문화공간운영단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문화재단은 2024년 경영비전과 미션·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14년차를 맞는 문화재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가치 실현에 초점을 뒀다.

문화재단은 '함께 누리는 문화포용 서비스 제공',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함께 참여하는 예술적인 미래 구상', '함께 실현하는 문

화행정 전문조직 운영'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른 12대 전략 과제는 '누림', '성장', '참여', '실현' 등 모두 4개의 키워드로 집약된다.

먼저 '누림'은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성화, 모든 세대·계층을 위한 예술돌봄 실현,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가 주요 골자다. 특히 무등산에서 즐기는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술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 키워드에는 예술인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 현장 맞춤형 창작 지원, 문화예술 유통 및 소비 활성화가 포함됐다. 광주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광주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유통 장구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창작활동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는 미래까지 창출 거버넌스 구축, 광주특

화 문화자원 브랜딩, 문화공동체 및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미래 역량을 모으는 전담 거버넌스 활동을 활성화하고 광주 지역문화자산 개발에도 역점을 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공생공락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광주 문화전문인력 발굴과 양성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실현'에는 ESG경영 선도 및 정책 가능 강화,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제고, 경영효율화 이행 및 실현 등이 전략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미제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문화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를 개편한다는 고안이다. 경영효율화 이행을 위해 인력감축, 조직슬림화, 기능조정, 예산절감, 시민권의 제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요성 직무대행은 "올해 제시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는 '예술씨앗'을 광주 곳곳에 뿌려 의미있는 성과와 결실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